News p/3
청와대 거부권 행사 파문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제3245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6
시장도 신세계 밀어주기?

‘이재용 킬러’ 하나 추가

24~25일 삼성물산(위)와 제일모직(아래)의 장중 주가추이. 24일 오후 2시께 국민연금이 SK 합병에 반대한다고 결정한 직후 삼성 합병건도 무산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순간적으로 급등했고, 제일모직 주가는 반대로 급락했다(동그라미 친 부분). 두회사 합병 비율의 비합리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이베스트증권

국민연금, 재벌 계열사 합병 찬반 기준 명확화
“시너지효과·지배구조 개선보다 주주가치 우선”
SK 반대 전례 삼성 건에도 적용할 가능성 높아

이슈 분석

‘이재용 삼성’을 위한 화룡점정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풍전등화다. 합병 주주총회에 앞서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합병에 대한 찬반 결정 원칙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반감까지 확산되면서 삼성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SK-SKC&C 합병에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건 모두 지배구조 이슈가 걸려있는 데다 합병비율을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4일 SK C&C- SK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 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런 원칙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그대로 적용하면 역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의 이사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주주가치를 충실히 고려했다면, 주가가 연중 최저점 근처에 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 수준인 시점에서 타 기업과 합병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당시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3~4배 고평가된 시점이었다.

합병비율 자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됐다 하더라도 합병시점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주주가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으로서는 합병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SK 건에서 스스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KCC를 포함해 19.95%에 불과하다.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가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30%를 확보하기도 버거울 수 있다.

7월초 ISS(기관투자자서비스) 보고서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 외국투자자는 상당수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주주총회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은 최소 47%의 찬성지분이 필요하다. 반면 엘리엇은 지분 23%를 확보하면 합병 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SK 합병 건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삼성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이란 명분을 삼성 건에서 번복하기는 힘들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건에서도 주주 가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도 삼성을 옥죄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께 국민연금이 SK C&C- SK 합병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물산 주가는 급등했고 제일모직 주가는 반대로 급락했다.

두 회사의 이런 주가 움직임은 삼성 합병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이번 합병안이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데 이미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저항도 공기업인 국민연금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합병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北 '남북관계 파탄' 선언… "최후 결판만 남아"

조평통 "만회·수습도 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북한이 대남업무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파국을 선언했다. 동시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았다는 말로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조평통 성명은 24일 밤에 발표됐다. 우리 측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조평통은 대남 입장을 발표하면서 담화, 대변인 성명, 성명 등의 형식을 사용한다. 24일 발표한 성명은 조평통 입장 중 최고 형식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종 밑에 괴뢰패당이 감행한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 설치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규탄한다"며 "박근혜 패당이 추악한 대결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벌인 것은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전면거부하고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최근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정부 성명' 형식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문패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며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란만을 일삼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이 사무소 개소에 협조했다며 남북관계 파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사설을 통해 "새 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의 범죄적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이번 조평통 성명으로 이보다 앞서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과 미국 등 모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지난 23일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신경숙 작가 표절사태와 한국 문화권력의 현재' 토론회.

문학계, 작가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신경숙 표절논란 계기 상설기구 설립 논의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을 계기로 문학계가 표절 등 작가가 지켜야 할 기본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23일 표절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내부 실무 협의와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5일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도 '신경숙 표절' 안건을 보고하고 이후 대응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속 회원 1만2000명의 국내 최대 문학인 모임인 한국문인협회는 표절 문제를 다룰 상설기구로 '문학표절문제연구소' 설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표절 감시와 정화 기능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표절을 판정할 심의 주체를 만드는 일은 또 다른 권력화의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기구화 작업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촉발된 문학권력 책임 논란의 당사자가 됐던 문학동네는 25일 계간지와 단행본 편집의 주체를 분리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앞서 '창작과 비평'(창비)은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됐던 신 작가의 작품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출고 정지조치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욕시, 내년부터 '설날' 휴교일 된다

美 샌프란시스코 이어 두번째 아시아계 공동체 "승리의 날"

뉴욕시가 23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대도시로는 미국에서 두번째다. 이날은 뉴욕시 아시아계 공동체의 '승리의 날'로 평가되고 있다. 첫 휴교일은 2016년 2월 8일이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플러싱 PS20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2016년부터 아시아계 공동체의 명절인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이 지켜지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날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웰링턴 첸씨는 외신에 "(공약을 지킨 것을) 정말로 환영한다"면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플러싱 PS20초등학교에서 "2015-2016학기부터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실제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에 앞서 지난 3월 뉴욕시 이슬람 공동체의 명절인 '에이드 알 피트르'(금식 종료 기념일)와 '에이드 알 아드하'(희생의 축제)가 먼저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막상 취임후엔 이슬람의 양대 명절만 휴교일로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일은 아시아계 공동체의 공분을 불렀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번 휴교일 지정은 그 결과물이다. 뉴욕주 의회는 상원에서 설날 휴교일을 통과시키고 하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다. 어차피 대세가 기운 것을 인지한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휴교일 지정을 발표한 셈이다.

한국계인 론 김(한국명 김태석)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날 "휴교일 지정은 단지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뉴욕시의 수십만 아시아계의 문화와 전통이 미국사회에 섞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대의 아시아계가 자라면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미국 사회 주류의 일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 1770개의 공립학교의 300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와 명절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산 교육이 될 것이며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병형기자

靑 '유승민 찍어내기'에 국회까지 흔들

박 대통령 전쟁선포에 여당 "항복"… 국회법 폐기 결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쏟아낸 말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세간에 떠돌던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했고, 자신의 결정에 발목을 잡던 비박(비박근혜) 여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여당을 되찾기 위해 국회를 흔들고 정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생법안 관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한다"며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결국 여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위헌 논란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선포에 꼬리를 내렸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론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였다. 유 원내대표도 "사퇴 요구는 더 잘하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여당을 굴복시키는 대가는 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밑바닥부터 흔들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전쟁 국면에 고심했고, 야당은 잠시나마 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고 맞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박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는 외면하면서 민생 추락에 대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여야 모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을지로위원회, LG·CJ 노조 피해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LG와 CJ 측 노조의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임단협 불이행 및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이 면책에 합의하며 면책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장기화된 쟁의행위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대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책금 지급 기한(조인식후 15일 이내)인 2015년 5월 18일이 다가오자 사용자 측에서는 지급을 2015년 6월 10일에 할 수 있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도 호소했다.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슈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특히 CJ그룹의 식자재 유통사업 문제를 꼬집었다.

뉴욕타임스가 24일 A섹션 18면에 "한국의 거대기업 LG가 팰리세이즈 파크의 풍치를 보호하기 위해 북미 신사옥의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기로 5개의 환경보호단체와 합의했다"고 대서특필했다. 23일 합의문에 서명한 후 로렌스 록펠러 회장과 LG전자 북미본부 조주완 본부장이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면책합의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피해 대책 요구

을지로위원회 측은 "CJ는 사업 참여 시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 경영지분을 확보하고 주주 중 일부만 남기고 법인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CJ는 법인 참여 시 장밋빛으로 약속한 사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약서에 근거한 경영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유통업자들은 20~30년 간 일궈온 사업을 CJ에게 다 빼앗겼다"면서 "과도한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CJ식자재유통진출피해자비상대책위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약 100조원 정도 규모의 식자재 유통시장의 대기업 꼼수 진출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조사를 요청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연말정산 '범위' 근로자가 결정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돌려받을지, 적게 내고 나중에 더 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송병형기자

김현웅 '공청회 자료집' 표절 의혹

논문과 90% 이상 일치해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25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이를 분석,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다고 전했다.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곳 이상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에는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600평, 2급 정비업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논문은 '현행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땅값'을 '지가'로 바꾸거나 조사와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및 출고, 보험금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 부분은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

/윤정원기자

'成 특사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시기·장소·방법 구체화돼야 최대 쟁점은 공소 시효기간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사진)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영화 '연평해전', 박스오피스 정상

이념 논쟁·북한 비난에도 흥행 '청신호'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연평해전'은 개봉 첫날인 24일 하루 동안 15만3404명의 관객이 들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NLL 부근에서 발생한 북한과의 교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김학순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이현우, 진구, 김무열이 주연을 맡았다.

당초 2013년 10월 개봉을 목표로 했으나 캐스팅이 바뀌고 투자와 배급 문제 등이 얽히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관객이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충원해 어렵게 완성됐다.

지난 11일 개봉 예정이었던 '연평해전'은 메르스 여파로 24일로 개봉일을 변경했다.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공개된 뒤에는 영화 속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우파 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영화가 개봉한 24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심히 왜곡날조한 불순반동영화, 반공화국 모략영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연평해전'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쥬라기 월드' '극비수사' 등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흥행에 청신호를 올렸다. 주말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극비수사'는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4일 동원 관객수는 13만7396명으로 '연평해전'과는 근소한 차이다. 누적 관객수는 159만을 기록하고 있다. 3위인 '쥬라기 월드'는 10만1562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373만을 넘어섰다. '연평해전'과 같은 날 개봉한 '소수의견'은 3만4334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4위로 첫 등장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분노의 도끼질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이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열린 북한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도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도끼로 내려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희 할머니 별세… 위안부 생존자 49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83·사진)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다.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김 할머니가 24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한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에게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에 있는 항공기 부속 공장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아오모리현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간 위안부로 생활했다.

정대협은 김 할머니가 해방 이후 귀국했고, 위안소에 있을 당시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1일 김외한·김달선 할머니가 생을 마감한 데 이어 김연희 할머니까지 6월 들어서만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연미란기자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미성년자를 연기한 성인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연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수사받을 땐 이렇게…" 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경찰이 한 대학생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 한다면 과연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이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필요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1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기를 가져갈 경우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민변이 발간한 개정판에는 2009년 냈던 책에 최신 사례·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압수하려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필자들은 "시민들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사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수술 중 천공으로 사망… 의사, 벌금형 확정

故신해철 사건 재판 영향 미칠 듯

최근 대법원은 척추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과 유사한 가수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주름성형술을 받다 숨졌다. 이 수술을 받은 직후 신씨의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두 환자 모두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생긴 점 ▲소장에 천공이 생긴 사실을 의사가 수술 직후 알지 못한 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점이 공통된 부분이다.

현재 의료계는 신씨가 받은 위주름성혈술이 합병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신씨의 합병증을 예상하고 빠르게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신씨가 호소하는 증상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소장의 천공이 생길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의 확정 판결사례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재판에 유리하게 반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대법정 들어서는 이주노동자 노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참석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전세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으세요"

생활 법률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당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연미란기자 actor@

메르스 확진자, 2일 만에 사망… '골든타임' 놓쳤다

확진자 접촉 17일 만에 당국 관리대상에 포함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70세 여성 환자가 확진 2일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후 17일이 지나서야 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초기 치료시점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173번 환자를 포함해 2명이 지난 24일 숨져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요양보호사로 같은 응급실에 있던 76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76번째 환자 역학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았다.

또 이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는데 확진 판정은 22일 나왔다. 증상 발현 후 12일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그 사이 이 환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기까지 의원과 병원, 한의원, 약국 등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 다녔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전후로 폐렴이 악화돼 외과계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 조사 결과 70세 고령이라는 점 외엔 특이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요인으로 진행이 급속히 됐는지는 임상적인 것이어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기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홍원기자

음식점·PC방, 8월22일까지 화재배상보험 가입해야

국민안전처는 음식점과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도 8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는 전국적으로 2만7797곳에 이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이기자

서울 버스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임금보전 위한 것' 비판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새벽 버스파업 시한을 불과 10분여 앞두고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서울 버스노사가 버스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임금인상에 합의해 요금인상이 임금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시작해 밤샘 협상을 벌였고, 첫차 시간인 오전 4시를 불과 10분여 앞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시급 3.7%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 5000원 지급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운행대수 1대당 노사 상생기금 월 1만 8000원 적립에도 합의했다.

서울시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학교의 등교시간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출근시간도 정상화했고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도 정상운행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준 운수종사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 사회의 관심이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쏠린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파업위기까지 초래하며 임금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요금 인상을 코앞에 둔데다 메르스 확산으로 시민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노사가 버스파업 우려까지 낳은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 것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설명과는 달리 결국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시설 재투자와 운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시장에 중기청장까지… 신세계 밀어주기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앞두고 특정재벌 중심 행사 참석 '빈축'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의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하 중기청)까지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선 면세점 입찰 발표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서울시장과 중기청장이 한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다며 비난이 거세다.

지난 24일 서울시·중기청·중구청(청장 최창식)·신세계·남대문시장상인회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중구청과 중기청은 3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화 추진, 특성화위원회 구성 등을 운영한다. 신세계 그룹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해 홍보·유통·마케팅을 지원한다. 목표는 연 350만명 규모의 외국인 방문객을 700만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기로 봤을 때 서울시와 중기청이 신세계를 밀어주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내달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 발표를 코 앞에 두고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어린애도 무엇 때문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지 알 것"이라며 "서울시의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뻔히 면세점을 두고 기업들이 경쟁하는 걸 알면서도 신세계 편을 들었다. 특히 업무 협약 시기를 보면 신세계를 밀어주는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 시장 상인은 "벌써 여러 차례 이런 협약을 했다. 하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데 업무협약은 계속 한다"며 "더군다나 중기청은 신세계가 골목상권 침해를 할 때는 팔짱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신세계가 면세점 한다니까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청장이 누군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3번이나 남대문 시장을 두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년도 안돼 남대문시장을 두고 4번이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4월 23일 업무협약에서 신세계그룹은 중구청·남대문시장상인회와 손잡고 남대문을 아시아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예산은 1억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한 남대문시장 상인은 "남대문시장을 살린다는 소리는 계속 들었지만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돕는다 돕는다하는 말만 하지말고 화장실 하나라도 나서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시큰둥 했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체결된 업무협약의 예산과 남대문시장 육성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중기청이 50억원, 신세계가 15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사용 용도와 사업계획은 7월께나 윤곽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호텔신라(사장 이부진) 합작법인·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현대백화점(회장 정지선)·롯데호텔(회장 신동빈) 등의 기업들과 면세점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 따르면 7월 중순께 면세점 관련 기업 PT가 있을 예정이다. 7개의 입찰 대기업 중 시장과 정부 기관이 동시에 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신세계가 유일하다.

한편 서울시는 "신세계 그룹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 초부터 계획된 업무협약을 이제야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담당자의 일정때문에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서울 중구 메사빌딩에서 지난 24일 열린 '남대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식 중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용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장재영 대표. /신세계 제공

백화점, 오늘부터 여름 정기세일

메르스 공포에 1~2주 단축

롯데·현대·갤러리아 등 국내 백화점업계가 26일부터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공포에 세일 기간이 지난주에 비해 1~2주 줄었지만 파격 할인행사로 불황 극복에 나선다.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7월 19일까지, 현대백화점은 7월 12일까지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세일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90%가 세일에 참여한다. 특히 블랙야크·밀레·몬츄라·슈나이더 등 4개 브랜드는 신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노스페이스·파타고니아·에이글 등 3개 브랜드는 기존보다 할인율을 10~20% 높인다.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와 핸드백 브랜드 '루즈앤라운지'도 최초로 최대 30% 할인한다. 슈즈 브랜드 '탐스'도 최초로 10~20% 세일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침구류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서울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 1층 하이주얼리&워치 매장인 쇼파드는 디아망트 컬렉션 신제품을 다음 달 9일까지 전시한다. 1일부터 예거르쿨트르에서 에나멜 워치, 하이주얼리 워치 등 신제품도 선보인다. 팝업스토어(임시매장)로 웨스트 2층에서는 다음 달 1~10일 '톰그레이하운드X 스튜디오콘크리트'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이 좋았던 '럭셔리 골프대전'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26~28일까지 압구정본점과 목동점에서 진행하는 '럭셔리 골프대전'은 각각 브랜드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균일가전을 연다.

한편 프리미엄 아웃렛도 기존 할인율(30~50%)대비 최대 30% 추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26일부터 28일까지 '해피 프라이스 상품전'을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포스코, 쌍용차와 전략적 협력 강화

고품질 자동차 소재 공급

포스코는 쌍용자동차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5일 양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번 MOU를 통해 쌍용차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쌍용자동차의 신차 개발에 따른 신강종 개발과 신소재 적용 등에도 솔루션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올해 1월 포스코의 고강도 자동차 소재를 채용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를 출시했다.

쌍용차 티볼리.

포스코는 티볼리 개발 초기단계부터 차체 적용 강종 제안과 고장력강판 성형 해석 지원 등 적극적인 솔루션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양사의 협력 결과 티볼리 차체에 약 72%의 포스코 고장력강판이 적용됐다. 최근 티볼리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티볼리 디젤, 티볼리 롱바디 등이 연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양사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전망했다.

특히 쌍용차는 차량 스피커 음질 향상을 위해 '코란도C' 모델에 마그네슘 스피커를 티볼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마그네슘 차량 스피커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마그네슘 강재의 판매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삼성 SDI "DIY 유행 선도… 전동공구 배터리시장 석권"

'직접 만들어서 쓴다'는 DIY가 유행이다. DIY를 실행하려면 전동공구가 필수다.

삼성SDI는 2005년 국내최초로 전동공구용 리튬전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동공구 시장에 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에는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동공구 시장은 전문가용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프리도니아(Freedonia)에 따르면 세계 전동공구 수요는 연평균 4.8%씩 성장해 2018년엔 시장규모가 32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엔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동공구 시장에 등장하면서 무선 전동공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콘센트와 전선이 필요 없는 무선 전동공구는 이동이 자유롭고 공간의 제약도 없어 편의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무선 전동공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선 전동공구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재 영업중! 예상 수익률은 가라!

12%+1% 더!

실투자금 4천만원~등기 후 **확정수익금** 즉시 지급

수익형 호텔 **코업스테이,**
지금이 **성공투자**의 기회입니다

고덕 삼성산업단지
청북택지개발
객실개별 등기분양
현덕지구
아산인주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포승국가산업단지
율촌화학
금호타이어
대창스틸
롯데삼강
현대모비스
농심
만도
동우화인켐
이구산업
현대글로비스
평택항
평택항 마린센터
국제여객터미널
서해대교

서울 이대역(2호선) 모델하우스 오픈중

투자포인트 1

평택·고덕 산업단지
삼성전자(100조 투자)
2016년 입주

진위산업단지
LG전자(60조 투자)
2017년 입주확정

투자포인트 2

- 계약즉시 **수익발생**, 합리적 분양가
- 부동산 상승률 **전국 1위**
- 자동차 수출입항 **국내 1위**
- 배후 산업단지 **387개**
-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연평균 52만**
-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평택항 4년 연속 물동량 증가율 1위

강남 20분! KTX 신평택역 (2015년 개통예정)

모델하우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2-41 서희 스타힐스 1F

신청금 입금 계좌	
계좌번호	하나은행 102-910040-86204
예 금 주	하나자산신탁
청 약 금	1,000,000 원

※선착순 호수 지정 ※미계약 시 전액 환불 됩니다.

분 양 문 의
02-755-6000

시행·시공사 (주)동우종합건설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하나자산신탁 호텔 운영지원 CO'OP 코업 C&C

※위 3D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르스에 지갑 닫았다"… 5월 카드사용 줄어

소비심리 위축 현실화
의료·여행·항공·병원 등
승인금액 증가율 둔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심리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카드승인액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내수회복세가 얼어붙는 모양새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51조76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 증가했다.

다만 이는 올해 1~4월 평균 증가율인 10.3%를 3.2%p 하회하는 것이다.

공과금업종을 제외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5.5%)도 1~4월 증가율의 평균치(7.3%)를 1.7%p 밑돌았다.

여기에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른 여파가 컸다.

실제 5월 상반월(1~15일) 공과금 업종을 제외한 카드승인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8.1% 증가했지만 메르스 환자가 나오며 위기감이 확산한 하반월(16~31일)에는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하반월간 카드승인액 증가율이 5.0%p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의료,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하반월 카드승인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의료업종의 경우, 카드승인금액(3조6000억원)이 작년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지만 5월 하반월에는 1.7% 감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5월말부터 메르스에 대해 염려와 불안이 확대되면서 일부병원의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조기퇴원환자가 증가했다"며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모두 5월 하반월의 카드승인액이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이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주춤한 것이다.

여행사·항공사 업종의 5월 전체 카드승인금액(7646억원)은 지난달 초 황금연휴 덕분에 5.6%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2.9% 감소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여행활동 위축으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는 7만여명을 기록하며 하반월 여행업종의 업황이 악화됐다고 여신협회 측은 분석했다.

학원업종의 카드승인액은 147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으며 하반기엔 8.3%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영업일수가 감소와 메르스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5월 영업일수는 작년 20일에서 올해 19일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상반기의 영업일수는 9일에서 10일로 늘었지만 하반기 영업일수는 11일에서 9일로 줄었다.

이밖에 유통업종 카드승인액(8조원)은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으며, 상·하반월간 증가율차이가 크지않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체크카드의 성장과 소액결제화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1조1800억원으로 전체 카드 승인액에서 21.6%를 차지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통계가 분리집계된 2012년 1월 이래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18% 증가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0조44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 늘었다.

건수는 신용카드가 총 7억40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총 4억58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7% 늘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 시급

건보 보장률 63%, OECD 평균 이하
국회, 표준화된 관리체계마련 논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퓨처라이프 포럼'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 미비, 보험료 인상폭 키워

의료·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을 상당부분 개선한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78%)와 EU 주요국의 평균 보장률(8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이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1.5%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보험 보장률 높여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이날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미적용돼 국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균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용효과적인 서비스와 관리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는 명목상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만 나뉘어져 있어 관련 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보니 비급여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김경례 팀장은 "비급여 관리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

농협금융,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위문 방문 NH농협금융지주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남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좌측 세 번째)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금융 제공

'기관경고' 받은 금융사, 신규사업 제한 완화

금융위, 대주주 자격 제한 3년->1년 축소

오는 9월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롯데카드 등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중제도가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다.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소급적용한다.

개선안 효과를 즉시 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그린손보 등 68개 금융사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M&A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한다.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과열 양상 치닫는 재건축·재개발 수주戰

향응제공·개별홍보 등 불법행위 난무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A재건축아파트. 대형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던 만큼, 시공사가 B건설로 결정된 후에도 한동안 분위기가 흉흉했다. 떨어진 C건설사를 지지하던 조합원들이 "B건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소문은 가라앉았지만 조합원 간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9·1부동산대책으로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위해 정비사업 수주에 나선 것이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 것도 대형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조합원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기도 성남 신흥2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 컨소시엄 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금지돼 있는 개별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금품·향응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일까지 부재자투표를 진행, 매표행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매표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곤 한다. 하지만 신흥2구역의 시행자인 LH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27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상아현대아파트도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상아현대아파트가 목동 재건축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품과 명품백을 받았다는 조합원이 나오면서 경찰까지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20일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반포동의 삼호가든3차 역시 경찰 수사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공공관리제가 적용, 공식 합동설명회 외 개별적인 조합원 접촉이나 금품·식사 제공 등이 금지됐다.

하지만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은 수십여 명의 홍보용역을 동원해 개별홍보에 나섰다. 또 인근 JW메리어트호텔·더팔래스호텔 등에서 조합원 100~200명씩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사·선물을 제공해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건설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택지지구 지정 중단으로 일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적이면서 수익성도 좋은 알짜 정비사업장으로 몰리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면서 흑색선전이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신세계건설, 턴어라운드 성공할까

올 1분기 영업익 126억원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

계열사 간 거래 비중 75% 부채비율 2000%는 걸림돌

신세계건설이 최근 추가 신규사업 추진과 대형 복합쇼핑몰 수주로 몸집을 불리면서 최근 몇년간의 '적자 쇼크'를 만회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계열사 의존도와 부채비율 등 여전히 위험요소도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건설은 25일 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이번 영구채의 명목 만기는 30년이다. 하지만 회사 요청에 따라 만기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사실상 '정해진' 만기가 없어 회계 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금리는 연 5.3%다.

이 회사는 이번 영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전액 자본으로 인정받으면 현재보다 부채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신세계건설에게는 호재다.

신세계건설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7% 증가한 2306억3323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26억8771만원을 기록 전년보다 10배가량 급상승했다.

적자쇼크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두 배 이상,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여기에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음식점업, 스포츠 서비스업과 함께 공중목욕탕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복합 쇼핑몰 공사와 기존 골프장 사업 경험을 활용해 레저사업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최근 호실적과 사업확장으로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신세계건설의 올해 영업이익 규모를 사상 최대인 64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세계건설의 '리스크'도 산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내부자거래(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다.

지난해 이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액은 6327억원으로 전체 매출 중 75%에 달한다. 이 기간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공사 총 72건도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내부자거래 비중이 높을 수록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신세계건설이 적자쇼크를 냈던 2013년의 내부자거래액은 2951억원이다. 전체 매출액 중 이를 제외한 금액은 1463억원에 불과하다.

총 매출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지난해에도 내부자거래액을 제외한 매출액은 2033억원에 불과하다.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질 증가액은 500억원에 불과한 것.

높은 부채비율도 걸림돌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세계건설의 부채비율은 2282.87%에 달한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1년 사이에 매입채무가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사의 매입채무액은 2252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건설의 경우 그간 그룹의 쇼핑몰 물건 등을 통해 급성장한 업체"라며 "최근 들어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크고 길음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손실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SK건설, '잔반 없는 날' 행사 SK건설이 수펙스 추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잔반 없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펙스 추구활동은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70g 이하로 낮추는 활동으로, SK건설은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은 임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제공했다. /SK건설 제공

대우건설, 모바일로 실시간 현장관리 하세요

'One Touch HSE-Q' 앱 개발

대우건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환경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장관리 시스템 'One Touch HSE-Q(품질-보건·안전·환경)'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One Touch HSE-Q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모바일로 현장의 안전이나 품질, 환경과 관련된 위협 요소나 부적합 요소들을 촬영해 해당 앱에 사진과 내용을 전송하면, 그 내용이 바로 담당자에게 푸시(알림) 형태로 조치 요청되고, 피드백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메뉴는 안전, 품질, 환경, 소통공간, 정보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태블릿 PC를 포함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계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One Touch HSE-Q' 어플리케이션 캡처 화면. /대우건설 제공

또 통신 단절구간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업계 최초로 자동 전송 기능을 탑재됐다. 사용 중 통신이 단절되면 촬영내용이 임시 저장되고, 추후에 통신 연결 지역으로 이동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앱에 전송된다.

알림 기능을 활용해 긴급 사항을 전파하거나 실시간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전송된 내용은 추후 통계자료로 분석돼 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활동에 사용된다. 소통 공간에서는 우수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도 있고, 모범근로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에는 안전·품질 담당직원만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작업한 뒤 담당자에게 수정 조치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라서 긴급사항을 처리하기에 쉽지 않았다"며 "이 앱은 이러한 과정을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하이트진로株 '자몽에이슬' 등에 업고 쑥~

칵테일저도수 흥행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주류전문업체 '하이트진로'가 칵테일저도주 '자몽에이슬' 흥행에 힘입어 올해 턴어라운드(기업 실적 개선)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몽에이슬'은 참이슬에 자몽의 맛과 풍미를 잘 살린 13도의 저도주다. 최근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칵테일 소주 열풍에 본격 가세한 것이다. 지난 19일 출시한 '자몽에이슬'은 시장에 나온 지 하루 만에 115만병이 판매됐다.

전문가들은 "하이트진로의 리큐르 신제품(자몽에이슬)이 지난 19일 출시된 이후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하반기 실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주가도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모처럼 함께 웃었다.

주가는 지난 4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4월 20일 장중 2만48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6일에는 장중 2만500원까지 하락했다. 두달 새 17.34% 가량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류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저알코올 과일소주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칵테일 소주 신제품 출시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후발 주자인 자몽에이슬은 초기 흥행이 중요한 만큼, 광고 선전비의 증가를 감안해도 매출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 소주사업자이기 때문에 흥행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2분기 하이트진로의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5020억원, 영업이익은 12.7% 늘어난 350억원으로 전망했다.

송치호 이베스트증권 연구원도 "하이트진로가 '자몽에이슬'로 참전하면서 소주칵테일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높은 배당 성향도 주가에 긍정적이다.

김정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판매 호조가 긍정적"이라며 "2만5000원을 하회하는 주가 수준에서 4~5%의 배당 수익률을 겨냥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백운목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안정적인 소주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최근 저도주의 인기로 소주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4%대 높은 배당 수익률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맥주 부문의 경우 2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어난 2117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전년 세월호 기저효과를 저도주 성장이 상쇄해 2분기 맥주 시장은 1%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맥주 시장 점유율 전망치는 37.5%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BEP) 레벨인 40.0%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주 부문 매출액은 2450억원, 영업이익 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6%, 9.5% 상승할 전망이다.

그는 "저도주는 신규 수요 창출로 판단돼 소주시장 잠식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자 부담 소폭 감소와 이자비용 부담이 있는 하이트진로홀딩스 손익구조 고려시 연간 1000원의 배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다음달 10일 기업공개(IPO) 예정인 토니모리가 상장을 통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

"코스피 상장… 中 공격 진출"

토니모리, 내달 10일 상장 5년내 매출비중 50% 목표

"이번 상장을 통한 적기 자금 조달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성장 비전이다. 이번 공모 자금으로 중국에 현지 공장을 짓고 매장도 열 계획이다."

홍현기 토니모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가 다음달 10일 코스피 상장을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니모리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은 10%다. 그 가운데 중국 비중은 25%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매출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홍 CFO는 "향후 5년 안에 해외매출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청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까다로운 중국 내 화장품 340개 품목의 위생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는 저장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천진, 푸젠, 광둥성 등 중국 전 지역에 토니모리 매장을 열어 직접 유통까지 할 계획이다. 특히 홍 CFO는 화장품 용기 제작사인 태성산업과 협업으로 통해 용기를 쉽게 조달해 제조·유통·판매를 적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설립된 토니모리는 현재 20개국에서 18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류 바람이 부는 러시아에도 진출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중 가장 많은 21개 매장을 열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 전문매장 세포라에도 입점했다.

토니모리의 매출액은 2010년 567억원에서 지난해 2052억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99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 규모였다.

다음달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토니모리는 다음달 1~2일 주관사인 KDB대우증권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294만주, 공모 예정가는 주당 2만6400~3만200원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776억~888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정경기자 jkljkl@

SK·SK C&C, 합병 성사 전망… 나란히 반등

| 마켓인사이트 |

증권가 "국민연금 반대 합병에 걸림돌 못 돼"

SK 주가 흐름.

SK C&C 주가 흐름. /키움증권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SK C&C와 SK 합병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에 나란히 반등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의 주가는 전일대비 3500원 (1.80%) 상승한 19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 C&C도 전날보다 8500원 (3.16%) 상승한 27만7500원에 마감했다.

이 같이 주가가 상승한 것은 SK-SK C&C 합병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 "합병비율과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26일 국민연금이 합병안을 다룰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표를 던질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합병 불발에 대한 우려에 두 회사의 주가가 5~7%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합병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자 주가는 반등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와 SK C&C 주가가 반등한 것은 합병 후 SK그룹이 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에 대해 "양사 합병비율도 적정한 데다 주가도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합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SK와 SK C&C의 각각 주총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회사별 약 45%의 찬성을 확보하면 합병 승인(70%의 주주가 주총 참석한다고 가정시)이 가능할 것"이라며 "SK C&C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46.2%, SK C&C가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 38.2%까지 고려하면 두 회사 모두 합병하는 안으로 주주총회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식매수 청구권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K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17만1853원이며, SK C&C 행사가는 23만 940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주 입장에서 굳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SK 그룹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 연구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SK대다수 주주들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합병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

진웅섭, 메르스 피해기업 금융지원 당부

"메르스 대출 취급 과정 은행 과실 없으면 면책"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들이 메르스 피해 우려 기업을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1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이 기업을 찾아가 관련 대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지역 거래 업체의 여신을 회수하지 말고, 거래업체가 관광·숙박 등 지원 업종이 아니라도 관련 피해로 판단되면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감원은 취급자에 대해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애플워치 오늘부터 판매… 삼성·LG '긴장'

아이폰 사용자 브랜드 충성도 높아
삼성 기어S·LG 어베인과 '진검승부'

애플의 애플워치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애플의 첫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26일부터 국내 온라인과 전용 샵을 통해 판매된다. 애플워치는 지난 4월 안방인 미국과 1차 출시국에서 판매와 동시에 '대박'을 터트리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슬라이스 인텔리전스는 애플워치가 지난 4월 말 출시 이후 이달 중순까지 279만대가량 팔린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일찌감치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의 누적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종의 스마트워치를 내놨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내놓은 '삼성 기어S'까지 약 200만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했다.

LG전자가 내놓은 'LG 워치 어베인'과 'LG 워치 어베인 LTE'의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애플의 애플워치가 출시될 경우 국내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워치 세트.

애플의 애플워치는 차별점과 분명한 콘셉트를 갖고 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에서 스마트부문과 워치(시계)부문을 모두 챙겼다. 전화·문자·이메일·SNS·음악감상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헬스케어부문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어S와 LG워치 어베인 LTE는 이통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지만 애플워치는 이같은 부담을 없앴다.

여기에 애플 아이폰6의 국내 흥행(지난해 11월 한국 시장 점유율 33%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데다 신제품에 호기심이 많다는 점에서 애플워치 구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플의 애플워치의 출시로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제품 성능 향상과 가격 등에 변화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넓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5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SK 제공

SK '메르스 극복' 팔 걷었다

헌혈로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K그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SK그룹은 전 구성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숫자만큼 회사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는 메르스 극복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메르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의료진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SK 임직원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메르스 극복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루 빨리 메르스가 종식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같은 대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SK그룹 전 임직원은 이날 서린사옥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서울·울산·이천 등 100인 이상 임직원이 근무하는 전국 SK사업장에 만들어진 헌혈장소에서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한다. SK그룹의 현재 임직원 수는 약 8만여명이다.

현재 메르스 여파로 개인 헌혈이 급격하게 줄고,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는 등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SK그룹을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SK그룹은 헌혈한 임직원 숫자만큼 회사가 매칭 그랜트로 온누리상품권을 유관 기관에 기부, 메르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울 예정이다. 헌혈하는 임직원 한 사람당 1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부한다. 메르스로 인한 고통이 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SK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린사옥 헌혈 행사장에는 김 의장과 이문석 SK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 E&S, SK㈜ 등 서린사옥 입주 SK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헌혈에 동참한 이 위원장은 "업무로 힘든 가운데도 헌혈에 적극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면서 "SK그룹의 작은 노력이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냉장고, 음악을 부탁해!

LG '디오스 오케스트라' 스피커 탑재 블루투스 연동

LG전자는 스피커를 장착한 프리미엄 냉장고 '디오스(DIOS) 오케스트라'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950ℓ와 870ℓ 용량의 '디오스 오케스트라'는 냉장고 문을 여는 빈도와 냉기손실을 절반으로 줄인 '더블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의 상단에 고품질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결합한 제품이다.

LG전자는 "주부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주방에 머물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주방에서 음악과 라디오를 듣는다는 조사결과에 착안해 '디오스 오케스트라'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디오스 오케스트라'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한 번만 등록해두면, 주방에서 언제든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즐기거나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다.

'디오스 오케스트라'는 출하가 기준 950ℓ가 610만원, 870ℓ는 445만원이다.

LG전자 홍보모델이 24일 LG 베스트샵 동교점에서 '디오스 오케스트라'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박영일 LG전자 냉장고사업부장 부사장은 "'디오스 오케스트라'와 같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대유위니아, 종합가전 기업 탈바꿈

'딤채' 브랜드 인지도 활용 디바이딤채 전기주전자 출시

대유위니아(대표이사 박성관)가 '딤채'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종합가전기업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는 25일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d° by dimchae(디바이딤채) 전기주전자'(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인 가구를 겨냥해 출시한 미니 냉장고 '딤채S'에 이어 딤채 브랜드명을 붙여 내놓은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인 '디바이딤채 전기주전자'는 주전자 몸체와 뚜껑 모두 두겹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적용해 부주의한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테인리스 몸체의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공기층을 지닌 단열구조로 설계돼(이중구조) 보온 기능도 높였다.

이 제품은 1.7ℓ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하단에 있는 LED 램프로 된 전원 스위치를 통해 전원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디바이딤채 전기주전자'는 쵸콜릿 브라운(KA17DC)와 다크실버(KA17DS) 2개 모델로 공장출하가 기준 6만9000원이다. /양성운기자

현대重 '씨마크 호텔' 개관 저탄소 녹색 호텔 연출

현대중공업이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 위치한 '씨마크 호텔'을 26일 개관한다.

씨마크 호텔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미국 LA 게티 센터의 설계자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했으며 현대건설이 건축했다.

본관 5층에서 연결된 경포 해변과 대관령이 한 눈에 들어오는 수영장을 비롯해, 스파, 피트니스 클럽, 키즈 클럽 등을 갖췄다.

태양광과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절전조명인 발광다이오드(LED)등을 설치해 '저탄소 녹색 호텔'을 연출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씨마크 호텔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최근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현대중공업과 씨마크 호텔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대우조선해양 방향타 '크루즈'로 조준

STX프랑스 인수자금 관련 서울 당산동빌딩 매각 언급 정성립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향후 STX프랑스를 인수해 크루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임을 암시했다.

인수자금은 대우조선이 보유한 서울 당산동 빌딩을 팔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대우조선 본사에서 CEO(최고경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의 미래는 결국 선박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해양플랜트, 첨단상선, 잠수함 등 특수선 3개의 포트폴리오로 회사를 운영 중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크루즈 분야도 대우조선이 가야할 분야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열린 CEO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립 사장(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종합기획부문장인 조욱성 부사장(왼쪽)과 재경부문장인 김열중 부사장이 동석했다.

또 "STX프랑스는 2020년까지 물량을 확보했고 재무상태도 플러스로 가고 있다"며 "STX프랑스는 우리나라 인식처럼 어려운 회사는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크루즈를 잘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TX프랑스를 대우조선이 산다면 300억원 정도"라며 "당산동 빌딩이 시가 450억 정도 한다. 그 빌딩 하나 팔아서 크루즈 조선소를 인수하면 괜찮은 장사"라고 덧붙였다.

인수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전했다.

정 사장은 "크루즈는 주체가 사람이고 문화가 들어간다. 이제까지는 서유럽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아시아 승객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건상 일단은 인수 건에 대해 잠정 파일을 덮어뒀다. 언제 재검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루즈선 자체는 회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정리에 관해서는 옥포조선소 본업에 도움이 되는 곳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곳은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의 블록공장과 부산의 설계부문 자회사인 디섹을 예로 들며 "중국에서 양질의 블록을 싸게 들여와 경쟁력이 올라갔다. 디섹 역시 거제도 대비 설계요원 인건비를 낮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사업은 수요가 줄어 자생이 어렵다"며 "좋은 원매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왼쪽)과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이 K7 도네이션 기부금 전달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K7 도네이션' 기부금 분당서울大병원에 6000만원

기아자동차는 심장병 어린이와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돕는 'K7 도네이션' 기부금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에 24일 전달했다.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윤창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석했다.

'K7 도네이션'은 ▲네티즌 1명이 참여할 때마다 기아차가 1000원을 기부하는 온라인 기부 릴레이 이벤트와 ▲지난 18일부터 4일간 열린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선수와 갤러리가 참여하는 한국여자오픈 기부 이벤트로 진행됐다.

기아차는 네티즌 5만4000여명의 참여로 모금된 온라인 기부 릴레이 모금액 5000만원과 한국여자오픈 기부 이벤트 모금액 1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의 'K7 도네이션' 기금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에 전달했다.

'K7 도네이션' 기금은 심장병 어린이와 의료 취약계층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車에도 메르스 항균 하세요"

현대차, 내달 17일까지 전차종 무상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의 무상 항균 서비스를 25일 시작했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 현대차 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전국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보유 차량의 제조사에 상관없이 국산차·수입차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상 항균 서비스를 다음달 17일까지 제공한다.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또는 시승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사람의 손이나 발이 자주 닿는 주요 부위(스티어링휠, 변속기, 인/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바닥 매트 등)에 연막 항균 소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전국 방문서비스인 비포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도 아파트 대단지나 대형 공영주차장 등에서 7월 18일까지 항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5일 현대차가 무상 항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7월 16일까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전세버스의 연막 방제와 항균 소독을 포함한 비포서비스를 전국 공영 차고지에서 실시한다.

이달 30일까지 전국의 현대차 법인택시 총 2만여대를 대상으로도 항균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정필기자

브릭스·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현대차, 에쿠스 등 232대 차량 지원

현대자동차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러시아 연방 바쉬키르토스탄 자치국의 수도인 우파에서 구영기 현대차 러시아판매법인장(전무), 블라디미르 나고르니 바쉬키르토스탄 부총리, 루슬란 미르사야포프 바쉬키르토스탄 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차가 이번 정상회담에 지원하는 차량은 ▲에쿠스 ▲제네시스 ▲i40 ▲스타렉스 등 4개 차종 총 232대다.

행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공식 대표단 등 관계자들의 의전과 행사 인력들의 업무 수행에 활용될 계획이다.

24일 러시아 우파에서 '브릭스·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공식 차량'전달식을 기념해 구영기 현대차 러시아판매법인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지원차량의 원활한 운영·안전을 위해 긴급 봉사반을 구성해 행사 중 지원차량을 점검한다.

현대차는 이번 브릭스·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에쿠스, 제네시스 등의 차량을 지원해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현대차의 우수한 기술력·차량품질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침체 탈출" 동국제강 선장 바꾼다

경영진 교체에 사업개편

동국제강의 장세주(사진) 회장과 남윤영 사장이 25일자로 대표이사를 사임 했다. 또 후판 사업의 역량을 당진 공장으로 집약하는 대신 포항 2후판 공장의 가동을 8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후판 사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다.

제품별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스피드경영과 책임경영에 초점을 맞췄고,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장 회장은 이메일로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보내고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며 "임직원 모두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과 남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장세욱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한편 후판 사업 구조 재편 방안으로서 동국제강은 현재 연산 340만톤 생산능력 당진, 포항 2개 공장 체제의 후판 사업을 연산 150만톤의 당진공장 단일체제로 슬림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후판 사업은 브라질 고로제철소(CSP)와 연계한 후판 일관제철소 사업화(쇳물부터 철강제품까지 생산하는 사업구조)에 집중하고, 전략적 제휴 파트너인 일본 JFE스틸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모바일 플랫폼 새 강자 '다음카카오'

'카카오택시' 이용자 300만건… 콜택시시장 1위 등극
샵검색·채널도 30일 오픈 예정… 인터넷은행 추진도

다음카카오가 대대적인 모바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존 네이버가 주도했던 플랫폼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올해 O2O 서비스인 '카카오택시'를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초단기에 콜택시시장 1위로 등극했다. 이외에도 다음의 콘텐츠를 카카오톡으로 옮겨 오는 모바일 차별화 전략으로 신규 모바일서비스를 대거 출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들이 기존 모바일 플랫폼을 주도하던 네이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네이버가 긴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가 주도해온 텍스트,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모두 카톡 안으로 품고 있다. 또한 O2O 및 금융 결제 서비스를 모두 모바일로 끌어안는 전략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카카오택시' 누적 이용자는 석달새 300만건을 돌파했다. 카카오 택시 가입 기사도 9만명을 돌파해 전체 택시(28만대)의 3분의 1, 개인택시(16만명)의 50%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택시 앱을 다운로드 한 사람만 200만명으로 이들의 택시 호출만 하루평균 100만건에 달한다.

택시 기사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생활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평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카카오택시 이용자들 소감을 살펴보면 "택시 기사에게 이런 저런 설명이 필요없어서 편리하다", "콜한 택시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지도에 실시간으로 나타나 신기하다"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카카오 택시 서비스 화면. /다음카카오 제공

모바일 시장 장악을 위한 다음카카오의 야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비장의 무기는 오는 30일 오픈할 샵검색과 카카오톡 채널이다.

먼저 샵검색은 카톡 채팅창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검색포털 다음의 검색 엔진과 콘텐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정식 서비스가 이뤄질 채널은 카카오톡 앱에서 연예, 스포츠, 패션뷰티, 동영상, 웹툰 등 모바일 사용자들이 관심있는 콘텐츠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허브다. 흥미위주의 가벼운 글부터, 사회 이슈 등 최신 뉴스까지 카톡의 채널 카테고리에서 서비스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의 성장 전략은 모바일을 넘어 금융·오프라인 시장도 넘보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로 이미 금융 서비스 문을 연 다음카카오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화 했다.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인 간편 주문 서비스 카카오오더는 소비자의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매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매장에서의 예약, 주문, 결제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출시가 유력한 추가 오프라인 서비스로는 카카오 대리운전이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사업 전략에 따라 사용자에게 모바일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모바일 시장에서 전에 없던 시도를 꾸준히 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LTE 어워즈 2015'서 최우수 LTE네트워크 사업자상

KT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LTE 어워드 2015'에서 최우수 LTE 네트워크 사업자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LTE 어워드 2015' 시상식에서 박재윤 KT 네트워크부문 현장기술지원단장 상무(가운데)가 '최우수 LTE 네트워크 사업자상'을 수상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KT 제공

삼성-SKT, SDN 기반 EPC 공동개발

<네트워크 코어 장비>

전세계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장비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기반의 네트워크 코어 장비(EPC)를 공동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SDN은 전 세계 이동통신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SDN은 네트워크 장비의 제어 부분과 데이터 트래픽 전달 부분을 구분해 데이터 전송 루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정한다.

특히 SDN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코어 장비(EPC)는 가입자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중앙의 코어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도 최적의 트래픽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SDN 기술을 적용한 EPC를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최단 경로를 설정하고 사용자 체감 품질 향상(QoE), 불필요한 망 부하 해소, 신속한 장애 처리와 투자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특히 SDN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망을 사용하면서도 특정 사용자와 가입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 대학, 공공 기관 등에서는 신규 통신망 구축 없이도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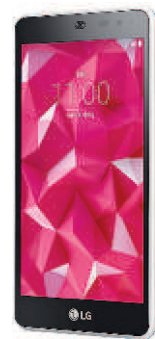
SDN 기술은 기지국 근처의 가장 짧은 트래픽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응답 속도(Low Latency)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오는 10월까지 SDN을 활용한 EPC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SKT, 보급형 폰 'LG밴드플레이' 단독 출시

지원금 최대 30만원 적용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보급형 스마트폰 'LG 밴드플레이'(사진)를 25일 단독 출시했다.

화이트와 블랙 두 개의 컬러로 출시되는 밴드플레이의 출고가는 34만9800원이다. 밴드데이터 100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적용된다. 2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도 지원금 16만원을 준다.

SK텔레콤은 출시 첫날인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밴드플레이를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데이터 2GB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고객 1000명을 추첨해 8월초 열리는 국내 뮤직페스티발 인천펜타포트에 초대한다.

이와별도로 페스티벌 현장에서 밴드플레이를 지닌 고객에겐 누구나 13만원 상당의 일일권 티켓을 20%까지 할인해줄 계획이다. 프로모션 신청은 별도 홈페이지(www.bandplay.t-event.co.kr/)에서 가능하다.

밴드플레이 단말은 5인치 HD 화면에 광각렌즈를 적용한 500만 화소의 전면카메라가 탑재됐다. 이는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단말 갤럭시S6와 동일한 사양이다. 13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역시 다른 프리미엄 단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밴드플레이 신규 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들은 온라인 공식 판매사이트 T월드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와 전국 4000 여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등을 통해 단말을 구매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본격 진출

'네이버페이' 서비스 시작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네이버 아이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충전, 적립, 송금까지 가능한 '네이버페이'의 정식 서비스를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페이로 최초 결제 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 및 계좌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간편한 인증만으로 페이 관련 모든 경험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즐길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에 로그인

이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기본으로 결제 이후 배송현황, 반품, 교환 진행과 적립·충전을 통한 통합 포인트 관리까지 가능한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은행과의 직접 제휴를 통한 차별화된 송금 기능도 있다. 이용자들은 본인 계좌정보 등록만으로 송금 대상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네이버 ID △휴대폰 번호·주소록 △과거 송금 이력 등 현재 구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이미 2009년부터 가맹된 쇼핑몰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안전하게 구매를 도와주는 '체크아웃' 서비스로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해 그동안 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후 3개월 만에 4000개나 증가했다. 지난 1월 4만여 개에서 6월 기준 5만3000여 개까지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또한 간편결제, 송금 기능 제공을 위해 국내 주요 은행·카드사 14곳과 제휴를 맺었다. /정문경기자

완벽한 여름 휴가를 위한 T.P.O 바캉스룩

< time · place · occasion >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TPO(시간 장소 때)에 맞는 바캉스 옷차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F·코오롱인더스트리FNC·금강제화에 따르면 올 여름 바캉스 패션 키워드는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함이 묻어나는 리조트룩과 시티바캉스룩, 해변 마린룩이다.

'리조트룩' 독특한 디자인을 '시티바캉스룩' 흰색 계열로 '마린룩'엔 스트라이프 활용

리조트룩의 기본은 편안함과 간편함이다. 가장 기본적인 리조트룩은 반바지나 9부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는 것인데, 이 때 일반적인 티셔츠보다는 컬러가 배색 처리되거나 그래픽이 프린트돼 디자인이 독특한 것을 입으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또는 주름 가공이 돼 몸에 붙지 않고 시원한 리넨(마) 성분이나 시어시커 소재 셔츠도 추천할만하다.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쇼핑과 외식 등 몰링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티 바캉스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티 바캉스룩은 활동성을 고려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도심 쇼핑을 즐기거나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는 세련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흰색 계열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상하의 모두를 흰색으로 연출하거나 둘 중

하나를 흰색으로 하고 속옷을 블루나 핑크 등으로 입어 포인트를 주는 것까지 모두 해당한다.

고급 리조트에서는 화려한 컬러와 다양한 패턴의 맥시 드레스가 제격이다. 특히 올 여름에는 줄무늬가 들어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디자인된 맥시 드레스가 유행할 전망이다. 맥시 드레스는 소재에서 보여지는 여유로움과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크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코디할 수 있다.

해변에서는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줄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나 셔츠 등을 입고 흰색 7부 반바지를 입으면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바닷바람이 강하거나 혹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것에 대비해 나일론이나 폴리 소재의 가벼운 방풍 재킷이나 머플러 하나쯤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발은 최근 트렌드인 스포츠 스타일에 코르크 소재의 매칭을 통해 선보인 '랜드로바 코르크 샌들'이 제격이다. 트렌디함을 더해주고 싶다면 페디큐어 컬러와 완벽한 궁합을 이루는 '로버스 마리나 샌들'이 좋다. 올 시즌 트렌드인 파란색 계열과 어우러진 실버스트랩은 시원한 느낌을 주고, 검정 계열에 매칭된 골드 스트랩은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이른 더위에 이른 할인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바캉스용품 할인전을 예년보다 대폭 앞당겼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는 내달 3일부터 아레나·레노마·엘르 등 수영복을 판매하는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래쉬가드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해서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아레나 여성 래쉬가드 8만9000원, 레노마 여성 래쉬가드 2만6500원, 엘르 남성 래쉬가드 5만9000원 등이다.

오픈마켓 옥션 비치웨어 전문관에서는 내달까지 래쉬가드·비키니·비치웨어·비치백·슈즈·선블록·에코백 등 '핫썸머 쿨링 아이템'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여름신상 슬랙스와 원피스 등을 1만2900원에, 물놀이 필수품인 누드브라, 물놀이튜브를 5800원에, 크록스 정품 샌들·슬리퍼를 3만2900원에 판매한다.

GS샵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편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메이크업뿐 아니라 자외선차단, 쿨링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애경 에이지 투웨니스(AGE 20'S)'와 통풍성이 뛰어나고 수분흡수와 배출이 좋은 린넨 소재로 만든 디자이너 손정완의 'SJ WAN I 라이트쿨 린넨T블라우스 3종' 등이 있다.

여행가방 속 챙겨야 할 잇 아이템

휴대성은 높이고 무게는 줄이고 워터프루프·선 케어 등 기능성 위주

여름휴가 계획으로 한창 들뜨기 시작하는 시기, 무더운 더위와 인파를 피해 조금 일찍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휴가를 떠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다. 부피를 덜어주는 아이템부터 자외선 차단제까지 다양한 바캉스 아이템을 소개한다.

◆여행가방은 가볍게

여행 출발 전엔 토너·에센스·크림 등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공병이나 작은 용량의 미스트 등을 구입해두면 좋다. 이니스프리에서는 5~10㎖ 정도의 파우치에 사용하기 좋게 담아 판매하고 있다.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 클렌징 크림·클렌징 오일·리무버 등을 이용해 1차 클렌징을 하는데, 이를 모두 챙겨가기에는 번거롭다. 이럴 때는 클렌징 티슈를 이용하면 좋다. 조금 더 꼼꼼하게 피부와 모공을 케어할 수 있는 진동 클렌저를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진동 클렌저 메이크온 '클렌징 인핸서'는 마이크로 모션의 피부운동 효과로 클렌징 후 부드러운 피부 결은 물론 탄력까지 개선해 준다.

◆두꺼운 메이크업·팬더 눈은 싫어요

물놀이나 땀을 흘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메이크업 번짐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보테니컬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피팅 폴리머가 함유돼 물과 땀에 번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

여름에는 두꺼운 메이크업을 피하게된다. 애경 루나 '워터 에센스 파운팩트 EX'는 파운데이션 안에 고농축 에센스를 함유시켜 메이크업 전 기초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팩트 하나만 발라도 촉촉함과 커버력이 유지된다.

◆자외선에 고통받은 피부를 부탁해

자외선은 피부 잡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주름개선기능까지 갖춘 썬 제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오휘 퍼펙트 선 레드'는 강력한 UVA 차단효과(SPF50+/PA+++)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주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촉촉한 데일리 안티에이징 선 크림이다. 더페이스샵 '내추럴 선 에코 아이스 에어퍼프 선 SPF50+ PA+++'은 피부 온도를 바르는 즉시 -5℃ 이상 차갑게 식혀주는 신개념 쿨링 선블록이다. 이 제품은 출시 2개월 여 만에 10만 개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진정 효과를 주는 제품을 발라 주는 것도 좋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은 캘리포니아산 유기농 알로에 추출물이 92% 함유돼 자외선과 외부 환경에 자극받아 붉어지고 건조해진 얼굴과 보디를 진정시켜 준다.

'샤워메이트 위드 마릴린 퍼퓸 바디미스트'는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올리브 추출물을 함유했다. 자외선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푹푹찌는 여름 무더위 하이마트와 날리세요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여름철 무더위 대비 상품을 알뜰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여름 대 축제' 이벤트를 30일까지 마련했다.

전국 438개 하이마트 매장과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www.e-himart.co.kr)에서는 에어컨 브랜드 대전이 열린다.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캐리어·위니아 등 인기 브랜드의 다양한 에어컨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선풍기도 초특가에 판매한다. 한일·신일·후지마루 등의 선풍기 인기모델 20개를 선정해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또한 26일부터는 가정용 선풍기를 1만9900원에 1만대 한정수량으로 초특가로 선보인다. 선정된 20개 제품은 가정용 일반 선풍기 외에도 탁상용 미니 선풍기·벽걸이 선풍기·업소용 대형 선풍기, 공기순환기 등으로 다양하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찬물에도 잘 녹는 아이스커피 '카누'

동서식품 '카누'

때이른 무더위로 아이스 커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의 '카누(KANU)'가 주목받고 있다.

카누는 원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잘 발현시키기 위해 기존 인스턴트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압력으로 추출하는 LTMS(Low Temperature Multi Stage) 추출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추출 기술은 같은 양이라도 일반 인스턴트 커피보다 많은 원두를 사용해 고품질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맛 볼 수 있다.또 찬물에도 잘 녹는 특징을 가져 야외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다. 카누 1스틱을 차가운 물 180~200ml에 잘 섞으면 얼음이 없더라도 시원한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성된다. 달콤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난다면, 자일로스 슈거를 담은 카누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이용하면 된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홍삼! 이제 시원하게 건강까지 챙기세요

정관장 '홍삼쿨'

정관장(한국인삼공사 대표 김준기)이 2013년 출시한 '홍삼쿨'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4계절 다양하게 홍삼을 즐기기 위해 찬물에도 쉽게 녹는 홍삼 개발을 목표로 만든 '홍삼쿨'은 세계 최초로 ES공법(홍삼분말을 냉수 또는 냉장 보관된 음료에 희석 시 용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을 적용해 섭취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제품이다.

기존 홍삼 제품들은 뜨거운 물에서 잘 녹았기때문에일반적인 직접 섭취 외에다양한음식에활용하기어렵다. 하지만 '홍삼쿨'은 찬물에도 쉽게녹기때문에 아이스크림·우유·주류·칵테일·샐러드·커피 등 다양한 식품과 결합이 가능하다. 또 포장을 스틱형으로 만들어 가정이나 사무실은 물론 여행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시에도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다. /김보라기자

특별한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 크림 커피

엔제리너스 '아메리치노'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의 여름 신제품 에스프레소 크림 커피 '아메리치노'가 인기몰이 중이다.

25일 엔제리너스커피에 따르면 '아메리치노'는 특별함과 크림 커피의 중후한 맛을 바탕으로 출시 한달 만에 20만 잔 판매됐다.

아메리치노는 구름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한 에소프레소 거품에 깊고 진한 커피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아이스 전용커피이다. 에스프레소 쓰리샷을 얼음과 블랜딩해 깔끔한 맛과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는 비주얼이 특징이다.

또 에스프레소 맛과 향기를 극대화 시키고 부드러운 거품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길고 매끈한 모양의 전용잔에 제공한다. /김보라기자

촉촉하고 가벼운 하루 위한 뷰티음료

롯데칠성 '이너뷰티 플래너'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여름철 촉촉하고 가벼운 하루를 위한 '이너뷰티 플래너'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마시면서 갈증 해소와 함께 피부와 몸 속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챙길 수 있는 이너뷰티음료다. 콜라겐·히알루론산·식이섬유 등 다양한 기능 성분에 상큼한 과즙·알로에베라의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까지 더했다.

'이너뷰티 플래너 알로에베리'는 촉촉한 하루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포함해 비타민 C, E 등 다양한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크렌베리와 블루베리 과즙을 넣어 상큼한 맛을 냈다. 이너뷰티 플래너 알로에 화이바는 가벼운 하루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제품이다. /김보라기자

바캉스에 술이 빠지면 서운하죠

슬러시처럼 마시는 소주 등 주류업계 본격 여름 마케팅

여름은 주류업계 최대 성수기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주류업계 성수기가 일찍 시작되면서 주종에 상관없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신개념 포장 방식을 적용한 소주로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올 여름 선보이는 '처음처럼 순한 쿨'은 파우치 팩 소주로 살짝 얼렸다가 녹여서 슬러시처럼 마시면 된다. 얼리지 않더라도 냉장고나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보관하면 기존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져 무더위 속에 즐기기 좋다.

또 과주 소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순하리 처음처럼'은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는 여름을 상징하는 색인 블루를 주제로 '카스 후레쉬'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해 성수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패키지는 카스의 브랜드 컬러인 블루를 강조함으로써 카스만의 시원하고 짜릿한 청량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맥주 성수기인 8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또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는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바캉스를 마련했다. 도심 속 피서를 즐기는 도심족을 위해 호텔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에서 풀(Pool)파티를 개최하는 등 참신하면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와 페르노리카코리아(대표 장마누엘 스프리에) 등 위스키 업체들은 온더락은 물론 보드카 칵테일, 위스키 칵테일 등 다양한 음용법으로 여름철 무더위 잡기에 나선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위스키 '임페리얼'은 칵테일로 만들어 마시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임페리얼 17년과 진저에일을 3대1의 비율로 섞은 '섈비어 임페리얼'은 향긋하면서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상큼한 맛의 '임페리얼 라이징'은 석류시럽 약간에 임페리얼 17년과 오렌지주스, 패션후르츠 퓨레를 3:3:2을 섞으면 된다. 위스키의 강한 맛을 꺼리는 여성들이 색다른 맛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디아지오코리아의 35도 저도 스피릿드링크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보통 실온에서 보관하지만 냉동실에 6시간 정도 넣어뒀다가 마시면 부드럽고 산뜻한 풍미의 위스키를 맛볼 수 있다. 과일향이 어우러진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 싱글 그레인 위스키 '헤이그 클럽'는 여름철 심플하게 온더락으로 즐기거나, 칵테일 베이스로 활용해도 좋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여름에 즐기는 부드러운 열대과일 맛 푸딩

CJ제일제당 '쁘띠첼 스윗푸딩'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의 쁘띠첼은 여름철 디저트 시장을 겨냥한 여름 전용 푸딩 제품인 '썸머멜로우'를 선보였다. 쁘띠첼 스윗푸딩 썸머멜로우는 푸딩 본연의 부드러운 식감에 열대 과일의 풍미를 한껏 살렸다. 신선한 우유가 멜론·망고와 어우러져 부드러운 열대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일반 멜론보다 당도가 높고 맛이 풍부한 레드머스크멜론을 사용해 달콤함을 더하고 알폰소 망고를 가미했다. 여기에 신선한 우유를 섞어 푸딩 고유의 식감과 부드러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무더위를 '환타'스틱하게 날리세요

코카-콜라 '얼려먹는 환타'

코카-콜라사(대표 이창엽)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얼리고 녹여 먹는 재미를 더한 '얼려먹는 환타' 2종을 출시했다.

'얼려먹는 환타'는 슬러시처럼 냉동실에서 얼린 뒤 녹여 먹는 파우치 형태의 음료 제품이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얼리고 녹여 먹는 색다른 재미까지 더해 젊은층들의 여름철 간식으로 즐기기 좋다.

파우치(130ml) 타입의 미니 사이즈로 출시돼 야외활동시에도 휴대하기 간편한 것이 특징.

칵테일 베이스,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동아오츠카 '나랑드 사이다'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나랑드사이다'는 설탕과 색소, 카페인이 모두 제로인 웰빙제품으로 바캉스족에게 인기다. 지난해 리뉴얼된 나랑드사이다는 제로칼로리 음료 특유의 씁쓸함을 개선해 탄산볼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럽고 상쾌한 맛을 자랑한다.특히 나랑드사이다는 최근 유행하는 믹싱 트랜드에 따라 칵테일 베이스로 활용하는데 제격이다.

와인이나 맥주, 보드카 등에 기호에 따라 배합하면 칼로리 걱정 없이 달달한 믹싱주를 재현할 수 있어 손쉽게 칵테일 파티를 즐길 수 있다.

고기·계란 없어 무한변신… 캠핑요리 제격

농심 '짜왕'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짜왕의 인기가 바깥에서도 예사롭지 않다. 라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짜왕의 위력이 피서지·캠핑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4월 출시된 짜왕은 싸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캠핑요리와 차별화된다.

농심(대표 박준)에 따르면 짜왕은 별다른 요리재료 없이도 든든한 한끼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또 짜왕 소스로 짜장밥을 만들어 먹거나 짜왕에 고춧가루·고기 등을 추가로 넣어 자신의 기호대로 요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야외에서 짜왕은 있는 그대로도 맛있지만 돼지고기, 야채, 고춧가루, 계란, 치즈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자신만의 요리로도 안성맞춤"이라며 "흔한 캠핑요리에 심심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짜왕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이색 별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망고·소다맛 추가로 골라먹는 재미 5배

삼립식품 '제리뽀'

삼립식품(대표 윤석춘)은 '탱글탱글 상큼한 젤리 제리뽀' 5종을 리뉴얼 출시했다.

삼립식품 '제리뽀'는 1983년 6월 선보인 젤리 형태의 제품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기존 사과·딸기·오렌지 맛에 새로운 망고·소다 맛 등이 추가돼 다섯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사전 소비자 조사를 통해 타깃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맛 중 하나인 망고맛과 소다맛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일 맛 제리뽀에는 천연과즙을 첨가해 과일특유의상큼하고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탱글탱글 상큼한 젤리 제리뽀는 과일 맛으로 구성된 12입, 20입 등의 멀티팩 제품과 망고·소다·딸기 맛이 한 개씩 들어가 있는 3개들이 제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5가지 맛 중에 원하는 맛을 골라 개별 구매도 가능하다.

생우유 95% 고소함 가득… 한끼식사 거뜬

매일유업 '바이오 플레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의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매일바이오 플레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매일 바이오 플레인은 올해 매출을 지난해 143억원보다 약 160% 성장한 38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매일바이오 플레인은 국내 최초로 출시된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대용량 제품으로 인위적인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 가장 요거트다운 맛과 식감을 살리는 생우유 95%와 유고형분 최적의 비율로 우유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 'L-GG 유산균'포함 복합 유산균이 농후발효유 유산균 법적 기준치보다 5배 높은 1g당 5억개에 달한다. 대용량으로 출시돼 한끼 식사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기에도 적합하다.

오징어·문어 제철 보양식 16종 선봬

CJ푸드빌 '계절밥상'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계절밥상은 오리·오징어·문어 등을 사용한 여름 신메뉴 총 16종을 출시했다.

오리는 예로부터 여름에 즐겨먹던 보양식이며 오징어와 문어는 영양이 풍부해 더위에 빼앗긴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여름 신메뉴로 국내산 오리고기를 우동면과 함께 간장 소스에 볶은 오리 볶음면, 오리와 된장 들깨를 듬뿍넣은 광주식 오리탕(인사동 비비고 계절밥상 제외)등을 보였다.

제철을 맞아 국내산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깊게 끓여낸 감자 된장국, 감자 채소 버무리, 감자 옹심이 국수도 출시됐다. 또 지난해 여름 메뉴로 큰 호응을 얻었던 오디 증편 채소 무침과 오디 빙수도 선보였다.

계절밥상 관계자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던 여름 먹거리를 맛보시고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슥삭 비벼 육수에 후루룩… 냉면? 쫄면!

오뚜기 '냉쫄면'

오뚜기(대표 이강훈)는 냉장면 신제품인 '육수에 말아먹는 냉쫄면'을 선보였다.

육수에 말아먹는 냉쫄면은 새로운 형태의 쫄면으로 기존 제품에서는 맛볼 수 없는 국물이 있는 쫄면으로 오뚜기가 처음 출시했다.

냉쫄면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자성당', 경북 경주의 '명동쫄면'을 비롯한 맛집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식집에서 '냉쫄면' 또는 '물쫄면'으로 불리며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메뉴다.

육수에 말아먹는 냉쫄면은 쫄면 특유의 쫄깃한 면발에 매콤 달콤한 태양초 고추다대기와 무·오이 등 야채 고명이 어우러진 시원한 동치미 육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로 기존 쫄면의 맛과 냉면의 시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밤·고구마 통단팥으로 色다른 팥빙수

동원F&B '동원 통단팥'

동원F&B(대표 박성칠) '동원 통단팥' 3종은 여름철 가정에서 손쉽게 팥빙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단팥 제품이다.

팥알갱이를 담은 '동원 통단팥'을 비롯해 각각 국내산 밤과 고구마를 첨가한 '동원 밤통단팥', '동원 고구마통단팥' 등으로 출시됐다.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가마솥 공법을 사용해 팥의 향과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어 맛과 식감이 좋다. 가마솥 공법은 단팥 가공에 사용하는 교반기(액체와 액체, 액체와고체 등을 휘저어 섞기 위한 기구)의 날개를 주걱 형태로 제작해 팥의 원물을 살리는 방식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여름철 팥빙수 수요가 많아지는 시즌을 맞아 동원의 과일캔과 함께 묶은 기획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강술래 "힐링 도서로 근심 훌훌~"

길벗 여행·운동책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메르스로 인해 근심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객들을 위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강술래는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과 '간고등어코치 홈헬스 무작정 따라하기(남자 명품복근)'를 증정한다.

주말여행 코스북은 여행 전문작가 5명이 참여해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이를 연계한 당일 1박2일, 2박3일 여행 루트를 그림 같은 절경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국내 최초 자동차 여행 코칭북이다. 홈헬스 따라하기는 자신의 체형과 운동 목적에 따라 단계별 10분씩, 총 4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요일별 맞춤 운동법을 소개한다.

/김보라기자

항공티켓부터 물놀이 용품까지 특가전 빵빵

티몬·쿠팡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대목잡기에 나섰다.

쿠팡(대표 김범석)은 바캉스 관련 기업전을 선보였다. 쿠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는 '물놀이 용품 기획전'에서는 ▲'록시' 여성용 래쉬가드 7만9000원 ▲릴리안 슬림핏 래쉬가드 4만9000원 ▲돌고래 튜브는 1만5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 전국 각지의 워터파크 이용 할인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워터파크 기획전', 생활용품·주방용품 할인 행사인 '여름 주방용품 기획전'등을 연다.

티몬(대표 신현성)은 여행을 위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7~8월 여름휴가 시즌에 떠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국내외 1000여개

여행 상품들을 최대 72%이상 할인한다.

해당 프로모션에서는 ▲방콕파타야 5일 패키지 여행상품 40만4000원부터 ▲서울~부산 KTX 자유여행 7만원부터 판매한다. 또 '오늘의 특가'도 준비해 다양한 항공권과 오션월드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김성현기자 minus@

star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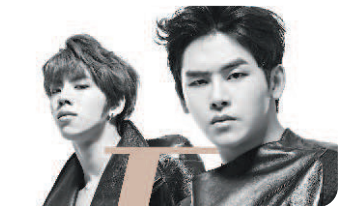
에세이 출간 작가 변신

개그우먼 **이국주**가 오는 30일 출간되는 에세이 '나는 괜찮은 연이야'를 통해 작가로 변신한다. 성공 이야기, 가치관, 생활의 지혜, 멋스러움 등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진솔하게 담아낸 책이다. 이국주는 내달 3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작가로 데뷔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짝사랑 담은 새 싱글

래퍼 **타이미**가 약 11개월 만의 새 싱글 '사랑은'을 25일 정오 공개했다. 타이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자신의 실제 짝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걸그룹 달샤벳 멤버 수빈이 피처링에 참여해 상큼한 목소리를 더했다. 소속사측은 "기존과 다른 타이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첫 소극장 공연 개최

가수 **백아연**이 오는 8월 7일부터 16일까지 홍대 벨로주 소극장에서 첫 소극장 공연 '소곤소곤-첫 번째 이야기'를 개최한다. 백아연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이럴거면 그러지 말지'가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2015년 첫 콘서트를 소극장 공연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월드투어 포스터 최종 공개

그룹 **인피니트**가 두 번째 월드투어 '인피니티 이펙트(INFINITE EFFECT)'의 마지막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인피니트의 래퍼인 동우와 호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인피니트의 두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는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류승범**

류승범(34)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로 2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그에게서 예전과 같은 강박이나 부담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언가 결정해서 사는 삶이 아닌, 주어진 것을 통해 배워가는 삶을 살고 싶다." 그의 말에서 세상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류승범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 '베를린'을 마친 뒤부터다. 영화 촬영을 마친 뒤에도 독일 베를린에 잠시 머물렀던 그는 무작정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곳에서의 삶은 "완벽히 다른 삶"이었다. 언제 연기를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내려놓을 것도 없다'는 말에 "나는 내려놓을 것이 없으니 편안하게 지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연스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절친 악당들'의 주인공 지누와 만났다.

영화는 우연히 검은 돈가방을 얻게 된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범이 연기한 지누는 "취직해서 월급쟁이가 돼 '따까리'로 사는 건 X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발칙한 청년이다. 첫 등장부터 유쾌한 몸짓의 편안함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류승범은 정작 지누를 연기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늘 에너지 넘치는 연기를 하던 그였지만 지누역은 에너지를 최대한 눌러야 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쉬고 있는데 감독님이 오셔서 힘들지 않느냐고 말을 걸었어요. '뛰어야 하는 말을 묶어 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웃음)."

그럼에도 류승범은 지누라는 캐릭터를 믿으면서 온전히 그 인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지누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았다. 첫 눈에 반한 나미(고준희)를 존중하며 나미의 말을 따르는 모습에서는 여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짜 남자'의 모습을 배웠다. "지누는 '맨'이에요. 마초적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이해하고 안아줄 줄 아는 남자죠. 지누와 제가 닮은 것 같다고요? 그냥 좋은 것만 배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무던히 배우며 노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영화는 지누와 나미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권력에 사로잡힌 세상에 맞설 청춘의 열정과 패기에 응원을 보낸다. 류승범은 "청춘을 정의내리는 건 힘들다. 나에게 청춘은 가진 것 없이도 재미있는 일도 신나는 일도 많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곧 청춘인 것 같아요. 경험이 생기면 취향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 취향으로 인해 경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다양한 생각과 경험, 감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청춘이죠."

70대 나이에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롤링 스톤즈의 믹 재거를 가리키며 "청춘은 결국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류승범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청춘이 아닌 자유다. "사람마다 삶의 방향성은 다르잖아요. 저는 청춘보다 자유로움이 더 좋아요. 짐 모리슨과 앤디 워홀, 벨벳 언더그라운드 같은 자유의 '스피릿'을 좋아하거든요."

류승범의 달라진 삶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나의 절친 악당들'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왔지만 다음 작품은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은 미래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아무 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흘러가듯 살려고 합니다(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이가영화사 제공

돈가방 갖게 된 발칙한 청춘
에너지 누르며 연기 힘들어
'진짜 남자'의 모습 배운 작품

걸그룹 멤버 변동 '핫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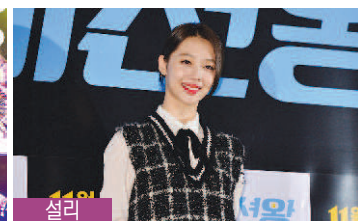
원더걸스 4인조 밴드 변신 에프엑스, 설리 탈퇴설

원더걸스

설리

걸그룹 원더걸스가 4인조 밴드로 컴백 소식을 알렸다. 걸그룹 에프엑스는 멤버 설리의 탈퇴설을 부인하며 5인 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5일 원더걸스가 오는 8월 초 4인조 밴드로 새 앨범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원더걸스는 2012년 6월 '원더 파티' 발표 이후 멤버 선예가 결혼하고 소희가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배우로 활동하면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왔다. 원년 멤버로 2010년 탈퇴한 선미가 다시 합류해 4인조 밴드 체제로 활동하게 됐다. 4인조로 재편성된 원더걸스는 예은이 키보드, 혜림이 기타, 유빈이 드럼, 선미가 베이스를 맡는다. 멤버들은 밴드로 컴백하기 위해 1년 이상 연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에프엑스는 멤버 설리의 탈퇴설이 불거졌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설리가 탈퇴해 배우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에프엑스는 크리스탈, 빅토리아, 루나, 엠버의 4인조 체제로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5일 "설리의 에프엑스 탈퇴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설리의 향후 팀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병호기자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싹·섬뜩… 심령 공포영화 '봇물'

악령·원혼 다룬 미스터리 공포 '인시디어스3' '퇴마: 무녀굴'등

최근 공포영화의 트렌드는 심령물이다. 악령과 원혼 같은 미스터리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이다. '쏘우' 시리즈를 탄생시킨 제임스 완 감독이 만든 '인시디어스'(2010)와 '컨저링'(2013)이 그 시발점이 됐다. 자극적인 잔혹함을 주로 내세우던 공포영화가 이제는 은밀한 섬뜩함으로 관객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올 여름에도 심령 공포물이 대거 개봉한다. 25일 개봉한 '데모닉'은 제임스 완 감독이 제작을 맡은 작품이다. 25년 전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루이지애나 주 리빙스턴 폐가를 찾은 6명의 대학생들이 겪는 미스터리한 일과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데모닉

인시디어스 3

퇴마: 무녀굴

영화는 실제 리빙스턴에 있는 폐가에서 촬영했다. 윌 캐논 감독은 "몇백 년이나 된 집으로 촬영 도중 의문의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촬영 비화를 밝혔다.

다음달 2일 개봉하는 '라자루스'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인시디어스' '더 퍼지' 등을 제작한 공포영화 제작사 블룸하우스의 작품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라자루스 이펙트 연구를 진행하던 연구원들이 겪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렸다. 사망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라자루스 신드롬'을 소재로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내달 9일에는 '인시디어스' 시리즈 최신편인 '인시디어스3'가 개봉된다. 제임스 완 감독과 함께 '쏘우' 씨리즈를 탄생시킨 리 워넬이 메가폰을 잡았다. 죽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불러온 알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는 이야기의 주요 무대인 집을 시리즈 사상 가장 어둡고 기이한 공간으로 만들어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심령 공포 시리즈인 만큼 전작들의 인기 요소도 그대로 이어갔다. 제작자 오렌 펠리는 "'인시디어스3'는 체계적이고 세련된 공포영화"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만든 심령 공포물인 '퇴마: 무녀굴'도 올 여름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웃사람'의 김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정신과 의사인 퇴마사인 진명과 그의 조수 지광이 기이한 현상을 겪는 여인 금주를 치료하면서 겪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렸다. 김성균, 유선, 천호진, 차예련, 김혜성 등이 출연한다. 내달 16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작이기도 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보아 절친 유해진의 옥순봉 두번째 이야기

◆ tvN '삼시세끼 정선편'

금요일 오후 9시 45분

지난 주 옥순봉을 찾은 보아의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전혀 친하지 않을 것 같은 보아의 절친 유해진도 함께한다. 유해진은 몸에 깊게 배인 만재정신으로 산책을 하다가도 어느새 설거지더미 앞에 앉아있고, 밍키와 놀다가도 아궁이 불 앞에서 불 담당까지 맡는다. 해진의 도움으로 극강의 비주얼 요리도 탄생한다.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보아의 화덕요리는 옥순봉 최고의 요리로 등극하게 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SBS '런닝맨'

일요일 오후 6시 10분

화끈한 여름 바캉스 특집이다. '식샤2'의 서현진, 황승언을 비롯해 베스티의 해령, CLC의 예은, 박하나가 런닝맨 멤버들과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다.

◆ MBC '나혼자산다'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태곤은 나홀로여행을 떠난다. 운치 있는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것도 잠시 폐가처럼 변한 별장의 모습에 당황한다. 결국 여행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 SBS '정글의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병만족은 밀림이 우거진 섬에 고립된다.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보지만 태풍의 공포 앞에서 물러선다. 한치 앞도 모를 처절한 생존기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5 6.25 기획 KBS 다큐 1 (재) 16시 10 징비록 (38회) (재) 17시 05 2015 K리그 클래식 19시 10 6.25 기획 다큐 공감 20시 00 8.15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39회) 0시 00 콘서트 7080	11시 25 프로듀사 스페셜 (재) 12시 45 개그 콘서트 (재) 14시 20 슈퍼맨이 돌아왔다 (재)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37회) 21시 20 네 멋대로 해라 22시 45 연예가 중계 23시 55 인간의 조건 – 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4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21회) 22시 00 여왕의 꽃 (31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12시 10 상류사회(재) 14시 20 런닝맨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1시 55 너를 사랑한 시간 (1회) 23시 15 그것이 알고 싶다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빅마마 이혜정의 신통방통 요리비법>(종합1~5)(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59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씬 레드 라인>	11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1회)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7회) (재) 16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32·12회) (재) 18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9회) 19시 55 JTBC 뉴스룸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1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10회) 0시 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8회)

28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7회) 16시 10 징비록 (39회) (재) 17시 40 2015 광주 U대회 개최기념 열린 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40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1시 4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시 10 네 멋대로 해라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7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38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2회) 23시 00 다큐멘터리 3일 0시 00 오렌지 마말레이드 (8회)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21·22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22회) 22시 00 여왕의 꽃 (32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1회) (재) 13시 10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1시 55 너를 사랑한 시간 (2회) 0시 15 너를 사랑한 시간 (2회) (재)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뷰티풀 마인드>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깃발 없는 기수>	13시 20 썰전 (121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51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1회) (재) 17시 25 사랑하는 은동아 (9·10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9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81회)

산도발, 경기 중 SNS하다 '벤치 신세'

스포츠 주간 해프닝

'좋아요' 눌렀다가 출장정지

파블로 산도발

맥스 셔저

하준호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 3루수 파블로 산도발(29)이 경기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 출장정지를 당했다.

18일(한국시간) 산도발은 팀이 애틀랜타에게 지고 있는 와중에 SNS인 '인스타그램'의 한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경기는 2-5로 보스턴이 패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감독을 비롯한 수뇌부에 알려졌다. 다음날 애틀랜타와의 연전 경기에 산도발은 빠졌다. 출장 정지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와 보스턴 구단에는 선수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경기 종료 시점까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스턴의 존 패럴 감독은 "실망스럽다"며 "(경기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누구나 아는 규칙 아닌가. 정말 실망이다.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는 오늘 벤치에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도발은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며 "나도 인간이라 실수를 했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 '좋아요'를 눌렀다. 7회에 화장실에서 그랬다. 그러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잘못을 털어놨다.

9회 2사에서 날아간 '퍼펙트게임'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한 타자를 남겨두고 평생 한 번 나오기 어렵다는 '퍼펙트게임'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가 나왔다.

21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 우완 맥스 셔저(31)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9회초 2사까지 무려 26명의 타자에게 단 1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퍼펙트게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피츠버그의 마지막 타석에는 대타 호세 타바타(27)가 나섰다. 타바타는 2볼-2스트라이크에서 파울 3개를 치며 퍼펙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셔저는 집중력을 발휘해 8구째 시속 138㎞ 슬라이더를 몸쪽으로 바짝 붙였다. 그러나 타바타는 팔꿈치로 파고드는 공을 피하지 않았다. 이로써 타바타는 몸에 맞는 공으로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 선수로는 처음 1루를 밟았다. 또한 메이저리그 통산 24호 퍼펙트가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번트로 만든 2루타로 득점까지

프로야구에서 번트로 2루타를 기록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그 주인공은 KT의 준족 외야수 하준호였다.

2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LG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 2차전에서 하준호는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LG 투수 임정우와 대결했다.

하준호는 1스트라이크 이후 임정우의 커브에 기습번트를 댔다. 그런데 이때 타구가 내야 수비를 벗어나 중견수 앞까지 흘러갔다.

LG내야진은 하준호의 번트가 1루 쪽을 겨냥한 것이라는 판단에 몸을 1루쪽으로 향했지만 타구가 느닷없이 2루 정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역동작에 걸려 수비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준호는 빠른 발을 살려 2루까지 진출했다. 이로써 번트로 2루타를 기록하면서 후속 타자인 오정복의 중견수 1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광주 U대회 '메르스와 전쟁' 선언

준비상황 최종 보고
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선수 감염방지에 만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3~14일) 조직위원회가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 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U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보고했다.

조직위는 "참가 선수단·임원 등에 대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동선에 맞춰 메르스 감염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즉시 격리하거나 인근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선수촌, 경기장 등의 출입구에 발열감지기와 손소독기 등을 배치하고, 대회시설과 주변지역을 철저히 방역해 대회개최지 전역에서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수촌이 개촌되는 26일부터 인천공항-광주간 KTX가 증편(1일 편도 2회→5회)해 해외참가자 수송을 지원하고,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 식음료 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황 총리는 "메르스 발생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 하계U대회 참가국 145개국 중 베네수엘라가 처음으로 입국해 선수촌으로 향했다. 산디 로드리게스 단장을 포함해 선수단 55명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환영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mjkim@

칠레, 9명 뛴 우루과이 제압 4강행

코파아메리카

카바니 경고 누적 퇴장

25일(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5 코파아메리카 8강전 칠레와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우루과이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 /AP=연합뉴스

개최국 칠레가 2015 코파아메리카 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우루과이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칠레는 25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의 8강전에서 유벤투스의 마우리치오 이슬라(27)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칠레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다. 볼 점유율에서 8대 2로 우루과이를 크게 앞질렀고, 슈팅수에 있어서도 15개로 6개의 우루과이를 압도했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수비에 막혀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쳤다.

칠레는 후반에 들어서야 우루과이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이슬라가 10분 뒤인 후반 36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 우루과이 골대 구석에 꽂히는 오른발 슛으로 귀중한 득점을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아투로 비달(28)도 풀타임 출전으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이후 경기는 감정전으로 번졌다.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며 출전이 불투명했던 우루과이의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28)는 전반 29분에 이어 후반 18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이에 경기가 격해졌고 패색이 짙어진 우루과이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다. 칠레가 여기에 항의하면서 양팀간 몸싸움으로 경기가 지연돼 추가시간이 10분 가까이 주어지기도 했다. 후반 43분에는 우루과이의 수비수 조르지 푸칠레(30)가 심한 태클을 하면서 퇴장당해 우루과이는 경기 막판 9명으로 싸워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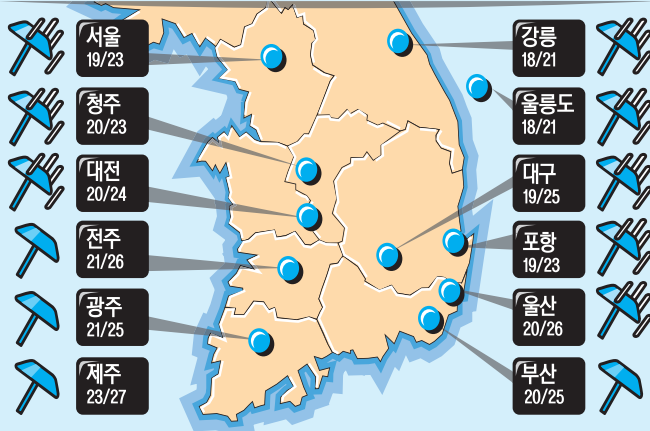
/하희철기자

강정호, 4경기만에 안타
추신수, 허리통증 또 결장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교체로 출전해 4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5회초 대수비로 교체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2로 조금 올랐다.

이날 강정호는 24일 신시내티전에 이어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팀이 1-5로 뒤진 5회초 2사 후 조시 해리슨을 대신해 3루수로 나섰다. 7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투수 땅볼에 그쳤고, 9회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피츠버그는 2-5로 패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전날 허리 통증으로 결장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텍사스는 2-8로 완패해 4연패에 빠졌다. /하희철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4				
			1	6	2	3	7	4
		5			7			
	1	9				6		
		6	3				5	7
		7		8				6
9		3			4			
		1			6	5		9

		5	7	1				4
	3				8		1	7
8			4		7			3
	7		6	9	3		4	
9			8		1			2
3	9		1				2	
1				7	9	6		

스도쿠 정답

6	3	4	5	7	9	8	2	1
1	7	2	8	4	3	9	6	5
5	9	8	1	6	2	3	7	4
3	8	5	6	1	7	4	9	2
7	1	9	4	2	5	6	8	3
2	4	6	3	9	8	1	5	7
4	5	7	9	8	1	2	3	6
9	6	3	2	5	4	7	1	8
8	2	1	7	3	6	5	4	9

7	2	1	9	3	4	5	8	6
6	8	5	7	1	2	3	9	4
4	3	9	5	6	8	2	1	7
8	1	6	4	2	7	9	5	3
5	7	2	6	9	3	8	4	1
9	4	3	8	5	1	7	6	2
3	9	7	1	8	6	4	2	5
1	5	4	2	7	9	6	3	8
2	6	8	3	4	5	1	7	9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Why Lee Jae Yong, Samsung is Desperate for Merger betweeen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Fabric

<'이재용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목숨거는 이유>

As the Merging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Fabric is becoming unclear, people are concerned whether Lee Jae Yong, Samsung can properly play its role.

The key point is to enforce the influence of Vice President Lee of Samsung Electronics.

The share of Samsung Electronics that Vice President Lee is holding is 0.57%. If merge takes place, he can hold 4.06% of the total share.

If he uses the connection of Merged Samsung C&T Corporation, Samsung Life Insurance Co and Samsung Electronics, he will hold 12.18% in his authority.

But if merge does not succeed, his control over the business will dramatically decrea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제공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이재용 삼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세 승계에서 핵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다. 합병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06%의 삼성전자 지분을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까지 활용하면 이 부회장이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2.18%로 늘어난다. 하지만 합병이 무산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고단한 예술가의 길… 결혼 운이 있을까요
결혼은 잠시 접고 직업적 현실에 투자하세요

wish2wise 67년 12월 3일 음력 저녁 식사 후

Q 아직 미혼이고 외국생활을 오래 했고 현재는 예술작업과 시간강사로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잘되는듯하다 마지막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착이 강하신 모친은 말은 결혼해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홀로 모시고 살았으면 하시고, 오히려 결혼 성립이 안 되는걸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모친과 가족들과 좀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시간 강의와 예술작업의 병행은 현실을 살아가기엔 참 힘이 드네요. 모든 걸 접고 외국으로 다시 나갈까 생각중인데, 제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운과 안정된 직업을 가질 운이 있나요?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집니다.

A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財星)은 곧 이성을 의미하는데 사주학 이론의 초급수준에서 부명(副命:부자의 사주)을 관별 하는 방식은 신강재강(身强財强)이라는 명식이 있습니다. 신강재강이란 사주에서 재물의 의미하는 글자의 세력이 강하고 그 세력을 능히 감당할 만큼 기운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운이 강하면 실타래가 풀리듯 일이 잘 풀리고 이성의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주의 유형은 내조(內助)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데 처가의 덕이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잠시 살펴본다면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 졌네요. 귀하의 운세는 본인은 이성의 도움을 받기를 생각지 않는다 해도 이성문제로 고초를 겪기도 하며 기쁨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합니다. 결혼이란 현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의 몰락까지도 올수 있으니 아쉽지만 당분간 결혼에 대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직업적 현실에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귀하의 사주는 사주상에서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뒤늦게 어렵게 발견되는데 이런 때는 독신자의 명이거나 아니면 아주 소중한 연분을 늦게 맺는 둘 중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소중한 연분을 맺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힘이 들수록 좀 더 노력에 기대십시오. 운에서 생(生)해주고 있으며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2017년 지나면서 복록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갈등과 번뇌는 탕화(湯火:끓는 물로 산재 사고나 음독사고를 나타내는 흉함)라는 기운이 있기에 그러한데 이 시점에서 불안으로 일관한다면 우울증이오며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반드시 불을 밝혀 자기분야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며 재고(財庫:재물에 창고)가 있어 어느 순간 재물운도 터지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6일 (음 5월 1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앞서가지 마세요. **6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72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거래는중개인을 통하세요. **84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73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님 도 보고 뽕도 따겠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50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들음이 이득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53년생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승승장구합니다.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거망동 하지마세요. **78년생** 북쪽방향이 길합니다.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합니다.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입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천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세요.

57년생 서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58년생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70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94년생** 새로이 시작 하려는 일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95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지금의 청와대는 '음지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송병형의
딴생각

취재를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와는 무관한 문화계 인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보통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결론 때문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지난 5월 28일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일은 언론계 종사자들에게는 갑작스런 일이었다. 마치 과거 느닷없는 공안사건으로 정국의 판을 뒤집는 일과 같았다. 공안사건의 뒤에는 의례 정보기관의 작업이 있기 마련이었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름 아닌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기명칼럼을 통해서였다.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이어서 다음카카오가 3분기부터 정부와 기업에 '공식댓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알고 보니 다음카카오는 이미 지난 5월 11일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였다.

"인터넷만은 반드시 정리하고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공언했다는 민 비서관이 속한 곳이 바로 홍보수석실이다. 국민소통실은 민 비서관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의춘 문체부 국정홍보차관보가 통제하는 곳이다. 기업의 반박 댓글이 많다는 핑계로 뉴스제휴 평가위가 사이비언론 딱지를 붙이면 힘없는 매체는 당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민 비서관과 이 차관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터넷신문협회가 평가위 참여에 가장 적극적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들린다. 친분 있는 한 경제매체 데스크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니 민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 귀띔을 해줬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개콘의 민상토론 내용에 문제가 많지 않더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데스크도 있었다. 직후 민상토론이 결방됐다는 소식에 '역시나'라고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김성우 홍보수석이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어 '살려야한다' 비판 기사에 역정을 냈다고 한다. '역시나 민 비서관의 상관 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난 5월초 서울연극제 기간에 대학로에서 만난 서울연극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윗분(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느라 아르코대극장을 못쓰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물의 노래'라는 연극 이름을 보고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직접 관람한 '물의 노래'는 세월호와 무관한 관동대지진이 소재였다. '물의 노래'라는 이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마음을 상징했을 뿐이다.

이 차관보는 미디어펜 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고, 유가족을 돕는 시민단체를 향해서는 "악마의 집단 같다"고 했던 인물이다. 있지도 않은 차관보 자리를 신설해 이 차관보를 그 자리에 앉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록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국정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확히는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나 중정을 닮아가고 있다. 1998년 국정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들 기관들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部訓)을 가졌다.

국정원은 1, 2, 3차장 산하의 여러 조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통설이다. 하지만 빈틈은 있기 마련이다. 언론계나 문화계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라는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찌보면 청와대가 국정원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부장

현대차그룹, 수입차 공세에 맞서 투자 늘려야

기자 수첩
정 용 기
<산업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멕시코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현대자동차는 2018년까지 중국 충칭 4,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 미국과 인도에는 새로운 현대차 공장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중국과 미국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율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다.

침체된 국내시장에서는 한반기 신차 출시가 잇따를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신형 K5 사전계약을 시작했고 LF쏘나타, 아반떼, 스포티지 등의 차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외 대규모 공장건설 투자에 비해 국내 투자는 부분 변경 모델 출시 등에 치우쳐있고, 해외서 수입되는 모델에 대처할 트림의 신차 출시에는 다소 인색한 모습이다.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외에서 총 200만9409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내수와 해외 판매 모두 줄어 총 판매량이 3.6% 감소했다. 기아차 역시 같은 기간 해외 판매 부진으로 총 판매량이 2.8% 감소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판매 목표도 총 141만대로 잡았지만 신차 라인업 부족으로 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또 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하반기 신차효과로 실적반등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신흥국 판매 저조에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내에 발표될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BMW, 포드 등의 신차 라인업도 만만치 않다.

유로화 약세와 엔저를 등에 업은 수입차 업체들은 더 많은 소비층을 확보하며 내수시장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자세로 더욱 촘촘한 세그먼트 신차개발에 공을 들여 국내 완성차 1위의 자존심을 지키길 기대해본다.

설명 없이 시간을 끌면 협상에서 밀리고 만다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한국의 B사는 미국회사인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B사는 A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미국의 C사에 A사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매수자인 C사가 A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니 A사의 지배구조가 특수하여 지분매각이라는 단순한 거래형태는 이 거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법한 거래구조를 만들었고, C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조건을 제시하였다. B사도 주요주주였기 때문에 매수조건을 제시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거래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서 B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사는 소극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정도만 할 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B사의 이런 태도를 본 C사와 A사의 주주들은 B사가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협상을 상당부분 진행하였고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다.

스케줄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때가 다 되자, A사의 다른 주주들과 매수자인 C사는 B사에게 계약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빨리 제시하라고 계속 독촉하였다. B사 혼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당사자인 다른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B사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서 협상 진행을 의뢰하였다.

변호사가 볼 때 여러 가지 협상의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포인트들을 C사에 제시하고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B사가 설명 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B사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항의를 계속 받았다. B사 역시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쫓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잘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시간을 끌지 않고 대응을 잘 하였더라면 보다 더 안정감을 가지고 계약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물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이 시간을 끌게 되면 상대방의 원망을 듣게 되고, 협상의 지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리게 된다. 향후의 협상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사

■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인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승진 <2급>▷영업처 요금제도팀장 배종태 ▷건설처 전기팀장 박진규 <3급>▷중부사업본부 김해사업소 공무안전팀 엄태선 ▷북부사업본부 삼송지사 고객지원팀 이창형 △전보 <대팀장> ▷비서실장 성기준 ▷기획처장 이경실 ▷경영관리처장 박은숙 ▷정보보안처장 노형두 ▷플랜트안전처장 탁현수 ▷중부사업본부 서울남부지사장 박래용 ▷중부사업본부 양산지사장 임종원 ▷중부사업본부 김해사업소장 조형제 ▷남부사업본부 화성서부지사장 김진홍 ▷남부사업본부 광교지사장 이창준 ▷북부사업본부 파주지사장 강창구 ▷북부사업본부 청주지사장 서태원 ▷화성동부지사장 양광식 ▷광주전남지사장 박완호 <소팀장> ▷홍보실 홍보팀장 주인수 ▷홍보실 동반성장팀장 조규덕 ▷기획처 예산팀장 정석규 ▷재무처 자금IR팀장 최석윤 ▷미래사업전략TF팀장 김정호 ▷건설처 사업관리1역 양희영 ▷건설처 사업관리2역 박진규 ▷건설처 건설관리팀장 곽승신 ▷건설처 전기팀장 전왕걸 ▷건설처 토건팀장 박남수 ▷중부사업본부 서울중앙지사 고객지원팀장 이창형 ▷중부사업본부 서울중앙지사 중앙공무TF팀장 박병규 ▷중부사업본부 서울중앙지사 네트워크팀장 정훈화 ▷중부사업본부 서울남부지사 고객지원팀장 유성환 ▷중부사업본부 서울남부지사 계전팀장 권영준 ▷중부사업본부 서울남부지사 운영2부장 남기술 ▷중부사업본부 서울남부지사 네트워크팀장 서희만 ▷중부사업본부 판교지사 네트워크팀장 박찬현 ▷중부사업본부 분당사업소 네트워크팀장 최기훈 ▷중부사업본부 김해사업소 고객지원팀장 김한수 ▷남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장 노규현 ▷남부사업본부 화성서부지사 운영부장 조원 ▷남부사업본부 화성서부지사 네트워크팀장 정인철 ▷남부사업본부 화성서부지사 안전품질팀장 임백수 ▷남부사업본부 광교지사 고객지원팀장 김남일 ▷남부사업본부 세종지사 공무안전팀장 최지훈 ▷남부사업본부 세종지사 운영부장 하영민 ▷북부사업본부 파주지사 계전팀장 안창구 ▷북부사업본부 파주지사 운영부장 손탁 ▷북부사업본부 삼송지사 운영부장 변기영 ▷북부사업본부 삼송지사 배전팀장 송철근 ▷북부사업본부 고양사업소 운영부장 손상철 ▷북부사업본부 고양사업소 네트워크팀장 신재천 ▷북부사업본부 청주지사 기계안전팀장 윤태헌 ▷북부사업본부 중앙연구원 신성장연구팀장 안덕용 ▷화성동부지사 네트워크공사TF팀장 최정섭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팀장 김현수 ▷광주전남지사 운영관리TF팀장 서상오
■ 밀양시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류욱희
■ 목원대
△처장급 ▷총무처장 겸 발전협력실장 임전수 ▷생활관장 황천수
■ 동의대
▷학부교육혁신본부장 한수환 ▷학부교육혁신본부 부본부장(교양교육혁신센터소장 겸임) 이영학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안영식 ▷학부교육혁신센터소장 최훈 ▷비교과과정지원센터소장 김영미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이광의 ▷학생서비스센터소장 이철균 ▷전략기획팀장 송재용 ▷대외협력팀장(다문화사회통합센터실장 겸임) 박병화 ▷경리팀장 김문주 ▷법정대학 행정지원실장(행정대학원 행정지원실장 겸임) 양형국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장 조창래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장 김형두 ▷학생서비스센터실장 황규성 ▷공학교육혁신센터실장 이석준 ▷관리팀 과장 황찬호 ▷국제교류팀 과장 강성윤

내일을 짓다 IPARK

세상을 잇다 HDC 현대산업개발

광교 어디에 사세요?

광교 아이파크에 삽니다

호수의 쾌적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십시오

광교 아이파크에 살면 호수공원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품격 높은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생활과 자부심이 당신의 것입니다.

쾌적한 호수공원 | 단지 내 상업시설 | 단지 인근 상업지구 | 단지 인근 명문학군

금일 GRAND OPEN!

청약일정		
	6월 29일(월)	특별공급
	6월 30일(화)	1순위

※ 광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는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소독제 및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광교 IPARK

광교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호수 라이프! 광교 아이파크

전용면적 84 ~ 90㎡ | 아파트 958세대 · 오피스텔 282실 ▶ 총 1,240세대

031)224-8900

www.i-park.com/gwanggyo

■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본 지면 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사업계획승인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 ■ 지번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3번지(광교신도시 C3 BL) ■ 건축연면적 : 258,497.7710㎡ ■ 시행 : 광교라이프PFV ■ 시공 : HDC현대산업개발